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김진환

해원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섬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 III. 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 IV. 맺음말

섬진강·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김진환 (해원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호남지역의 수계는 호남지역만을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수계가 있으면, 충청권과 경상권이 포함되는 금강, 섬진강, 낙동강수계가 있다. 이외 서해와 남해로 유입하는 전라남해권 수계와 서해권 수계의 하천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0: 19).

본 발표는 섬진강유역과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을 파악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유역별 주거의 특징과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 초기~후기까지이다¹⁾. 공간적 범위는 수계를 기준으로 섬진강유역과 탐진강유역을 대상으로 한다. 섬진강은 상류인 진안에서 하류인 광양만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며, 지역적으로는 전북 순창·임실·남원과 전남 곡성과 구례, 광양을 포함한다²⁾. 탐진강유역은 전남 장흥과 강진 일대로 부산천, 움천천, 유치천, 금강천을 비롯한 지류를 포함한다.

II. 섬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과 장수군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八公山, 1,151m)에서 발원하여 전라남·북도의 동쪽 지리산 기슭을 지나 남해의 광양만(光陽灣)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강은 진안군 발원하여 백운면과 마령면 등에 충적지(沖積地)를 발달시키며, 성수면에서 구불구불하게 흘러 임실군 운암면에서 갈담저수지로 흘러든다. 순창군 적성면에서 오수천(獒樹川), 남원시 금지면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의 경계에서 요천(蓼川), 곡성군 오곡면 압록(鴨綠)에서 보성강(寶城江)과 합류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부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경계를 이루며 광양시 골약면의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섬진강유역의 권역별 경사분석결과 20~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유역면적의 56.6%를 차지할 만큼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하다. 평균 경사는 32.57%이다³⁾.

1)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규정(2016)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보성강유역과 남해안의 순천, 광양은 본고에서 제외하였으며,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구 승주군일대는 섬진강수계에 포함하였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섬진강유역은 넓게 보면 보성강유역을 포함한 광양만 주위의 순천, 광양, 여수, 하동 등 광범위한 권역으로 볼 수 있지만, 금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섬진강의 본류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적 현황 및 분포

섬진강유역에서는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6개 유적 126기이며, 초기~중기 주거지는 확인되고 있지만, 후기 주거지는 조사된 바 없다.

1) 조 · 전기 유적

현재까지 조사된 조 · 전기 유적은 5개 유적(9기)으로 다른 유역권에 비해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다.

표 1.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조 · 전기 주거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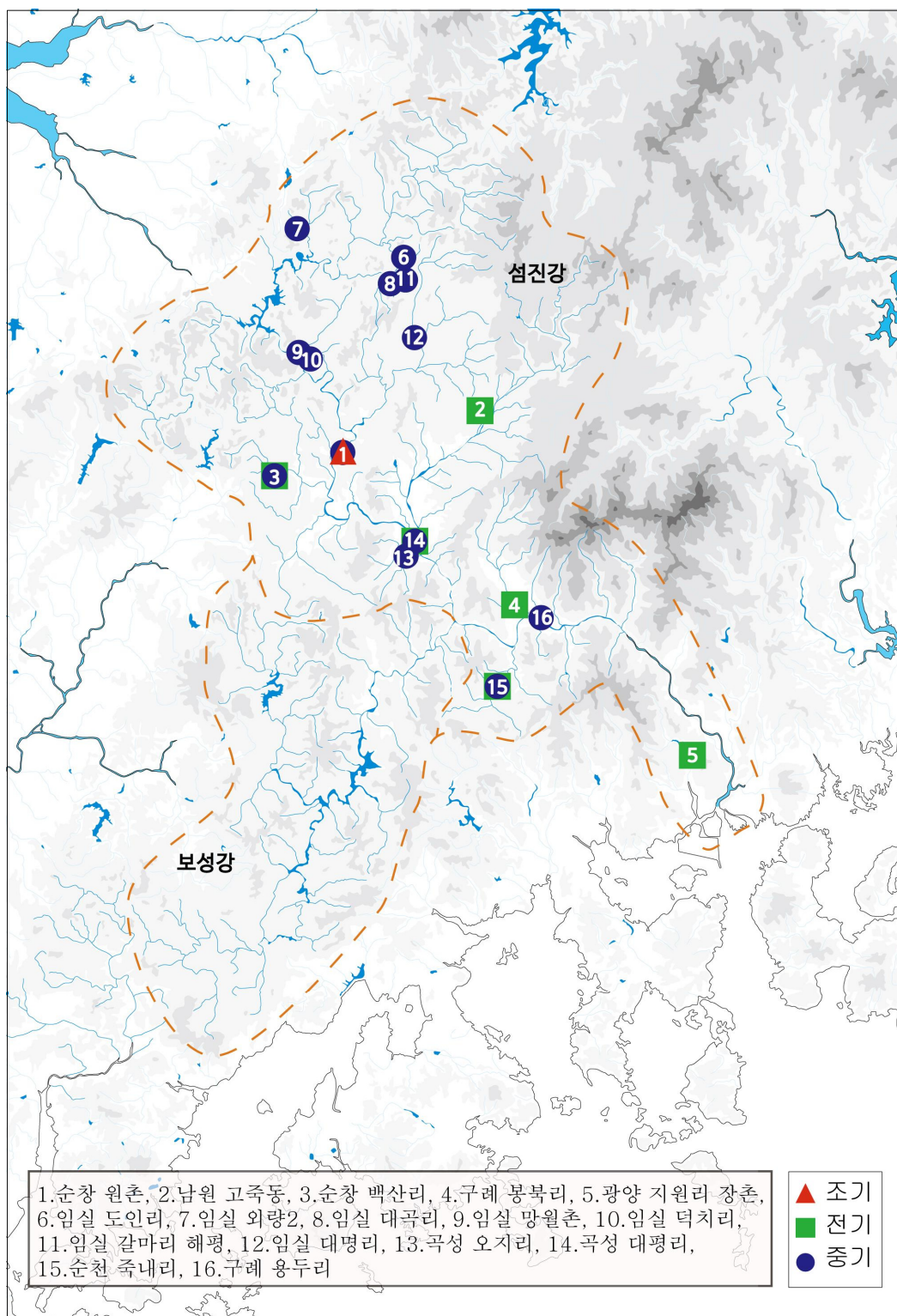
시기	분포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성격	입지
				미상			
초기	중류역	순창 원촌	1		신석기시대 수혈 적석노지	미사리유형 (석상위석식노지)	총적지
전기	중류역	남원 고죽동	2	1		역삼동 혼암리	구릉
		순창 백산리	1		수혈 18기, 구2기	역삼동 혼암리	총적지
		구례 봉북리	2	1	야외노지, 집석유구, 지석묘	역삼동 혼암리	총적지
	하류역	광양 지원리 장촌	3		지석묘, 수혈	역삼동 혼암리	구릉

초기의 주거유적은 중류역에 순창 원촌 유적뿐이다. 순창 원촌 유적에서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주거지와 Ia식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런 전형적인 미사리식주거지는 호남지역에서 최초의 예이다(김규정 2013).

전기의 주거유적은 중류역에서 남원 고죽동, 순창 백산리, 구례 봉북리 유적 그리고 하류역에서 광양 지원리 장촌 유적이 조사되었다.

남원 고죽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1호 세장방형, 2호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주혈이 확인되었다. 보고자에 의하면 불에 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무시설석노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토기의 경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 공열구순각목, 단사선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사선구순각목문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중앙에 화덕으로 보고된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물은 저부만 출토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2기의 주거지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2019).

순창 백산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6기, 수혈 18기, 구 2기가 조사되었다. 3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 토기편과 단사선문토기편이 출토되어 전기 주거지로 판단되며, 6호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이다.



도 1.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분포도

구례 봉북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 야외노지, 집석유구, 구, 수로,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전기로 판단하지만 주거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김규정(2013)과 홍밖음(2013)은 각각 봉북리 1호와 봉북리 1호, 2호, 3호를 전기 단계로 보았다. 그러나 이종철(2015)은 공열토기와 심발형토기의 전통은 영남지역과 연계되는 섬진강 유역권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기로 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절대연대를 적용하면 2호 주거지는 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표자는 출토유물과 절대연대를 근거로 1호와 2호가 전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광양 지원리 장촌 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와 수혈 6기, 구상유구 1기,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3기는 모두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장방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로 무시설식 노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문토기(1호, 2호)와 단사선문토기편(3호)이 출토되었다.

조·전기 주거유적은 중류역과 하류역에 분포하며 아직 상류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유적의 입지는 충적지와 구릉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 수가 소략하여 전체적인 양상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2) 중기 유적현황

중기의 주거유적은 상류역에서 7개 유적, 중류역에서 6개 유적 총 13개 유적(115기)이 조사되었다.

중기 주거유적은 송국리문화단계로 전 유역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들 역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이종철 2015: 35).

표 2.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유적 현황(※전기유적과 동일함)

시기	분포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입지
			송국리	순수 방형계	미상		
중기	상류역	임실 도인리	7				구릉
		임실 외량2		20		수혈, 구, 석곽묘, 지석묘	구릉
		임실 대곡리	3		2	수혈, 소성유구	구릉
		임실 망월촌	4		1	구	구릉
		임실 덕치리	1				구릉
		임실 갈마리 해평	6	8			구릉
		임실 대명리	1		4		구릉
	중류역	순창 원촌※	1				충적지
		순창 백산리※	1	3	1		충적지
		곡성 오지리	20			수혈, 구	충적지
		곡성 대평리	18	9	2	수혈	충적지
		순천 죽내리	1		1		구릉
		구례 용두리	1				구릉

임실 도인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⁴⁾ 7기가 구릉 정상부에서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부편이다. 석기는 석검편, 석촉, 갈판,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타원형수혈 주변에서 소결된 점토덩어리와 마연도구, 갈돌, 갈판 등 석기 제작에 사용되는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임실 외량2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0기, 수혈 10기, 구 2기, 석렬유구, 석관묘 3기,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2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은 주거지 12기, 수혈, 구상유구가 확인되며, 주거지는 반원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주거지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수혈은 주거지의 하단부에 집중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주거지 8기,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서쪽 군집과 유사하게 반원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인 타원형수혈이 없는 순수방형계이며, 14호·18호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발형토기와 호형토기가 대부분이며 적색마연토기와 소형토기도 출토되었다. 석기는 석촉, 석부, 석도, 방추차, 지석, 연석과 다량의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미완성석기와 석재는 석기 출토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60%가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석렬유구는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는데 내부에 분묘군, 외부에 생활유구가 분포하고 있어 분묘공간과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시설로 보고 있다.

임실 대곡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5기, 소성유구 1기,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송국리식주거지는 3기이며 유물은 구연부편, 저부편, 동체부편, 적색마연토기와 삼각형석도, 석부편, 지석,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임실 망월촌 유적에서는 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4기가 송국리식주거지이다. 유물은 발형토기와 호형토기, 석검, 석촉, 석착, 석부, 흙돌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의 경우 화제폐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량의 유물과 함께 단시설이 조사되었다. 단의 상면에서는 흑도와 완형에 가까운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었으며, 석검과 인접한 바닥면에서 석기의 제작흔적으로 추정되는 석재편들이 확인되었다.

임실 덕치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무문토기편과 석촉, 미완성석촉,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임실 갈마리 해평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6기와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지 않는 순수방형계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각 주거지는 유적의 동서로 나누어 각각의 군집을 이루어 입지한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 대부분은 저부편이며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발형토기의 내만구연, 외반구연이다. 내만구연은 무문이 중심이지만, 10호에서 공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천발이 6점 출토되는데 모두 순수방형계 주거지에서만 출토된다. 석기류는 118점이 출토되었는데, 완제품 형태를 보이는 석촉 7점, 굴지구 1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0점은 석기 제작 관련 유물로 유적의 성격 역시 석기 제작과 관련된 취락으로 보고 있다.

임실 대명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으며, 송국리식주거지는 2기이다. 유물은 발형토기가 주를 이루며, 타원형구덩이와 주변에서 석기 제작과 관련된 다량의 석재와 박편이 출토되었다.

곡성 오지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 20기와 수혈 4기, 수로 등이 조사되었다. 수로를 경계로

4) 송국리식주거지 각 형식은 주거지의 평면형태(방형Ⅰ식, 원형Ⅱ식)와 타원형구덩이, 중심수혈의 위치에 따라 A식, B식, C식, D식으로 구분된다(김규정 2013).

동쪽과 서쪽에 군집을 이루며 남-북방향의 열상배치를 보인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발형토기 이외에 대부분 저부편이며, 18호 주거지에서 공열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석기류에서 미완성석기와 석재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평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29기, 수혈, 구, 소성유구, 주구묘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고, 송국리형 주거지 18기, 노지가 있는 주거지 8기, 미상 2기이다. 주거지의 중복은 8호와 9호, 11호와 12호, 15호와 16호, 17호와 18호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노지가 설치된 15호와 17호를 각각 송국리식주거지인 16호와 18호가 파괴하고 축조하였고, 노지가 없는 9호를 송국리식주거지인 8호가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11호 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가 있는 12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공열토기, 발형토기, 어망추, 석검편, 석촉, 석창, 삼각형석도, 부리형석기, 연석, 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공열토기는 15호(노지)와 21호(송국리식)에서 출토되었으며, 19호 주거지의 경우 타원형구덩이와 주변에서 다량의 박편이 출토되어 석기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 죽내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송국리식주거지 1기만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 호형토기와, 석창, 흙돌 등이 있다.

구례 용두리 유적에서는 방형의 송국리식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과 석촉, 석창, 지석, 미상석기, 박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구성상 석기제작 및 가공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섬진강유역은 상류역에 감입곡류 하천과 충적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중류역인 곡성과 구례 일원에 가장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하류역으로 갈수록 충적지의 미발달과 협소한 곡간지형을 특징으로 한다(이종철 2015). 상류역의 중기 주거유적은 모두 임실군에서 확인되며, 7개 유적 모두 구릉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중류역의 중기 주거유적은 구릉과 충적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20기 이상의 중규모 취락은 충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주거지의 편년

1) 조 · 전기 편년

조기 주거는 미사리유형의 순창 원촌 1호 주거지가 유일하며 절대연대 자료가 없어 가락동유형(익산 영등동 I-17호)보다 앞선 시기로 편년(양영주 2013: 315)하거나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들의 연대를 참고하여 기원전 15~14세기(홍باط음 2013: 329)로 여기기도 하였다. 2015년 전주 동산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절대연대와 비교하여 조기 하한을 2900BP로 편년(김규정 2016: 183)하였다.

호남지역 전기 편년은 김규정(2007, 2011, 2013, 2019), 양영주(2009, 2013), 홍باط음(2010, 2013), 김문국(2010), 정다운(2015), 천선행(2016)에 의해 실시되었다.

김규정은 호남지역 전기를 절대연대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가락동유형은 기원전 13~10세기, 역삼동·혼암리유형은 기원전 12~9세기로 편년하였다(김규정 2013: 31). 섬진강유역 전기는 절대연대로 보면 상한은 순창 동촌과 구례 봉북리에서 얻어진 2900BP로 볼 수 있으며, 하한은 순창 백산

리에서 얻어진 2700BP로 편년하였다. 이를 역연대로 환산하면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은 남원 고죽동 1호 주거지로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려 볼 수 있으며, 고죽동 2호 주거지와 구례 봉북리는 기원전 9세기로 보고 있어(김규정 2016: 190) 섬진강유역의 조·전기는 기원전 12~9세기로 보았다(김규정 2019: 13).

양영주(2009, 2013)는 전북지역 전기를 전반-중반-후반으로 구분하였다. 중반은 역삼동·혼암리 유형 I 기에 해당하며 세장방형주거지에 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이중구연의 요소에 단사선, 공열, 구순각목 등 복합문양이 시문되며, 순수 공열문만 시문된 토기도 출토되며, 남원 고죽동 1호 주거기가 이에 해당한다. 후반은 역삼동·혼암리 유형 II 기에 해당하며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규격화되며 노지가 사라지고 유물은 순수 공열토기와 무문양토기,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된다. 구례 봉북리 유적이 해당한다.

홍박음(2010, 2013)은 가락동유형을 분석하여 호남지역 전기를 4기로 구분하였다. 혼암리유형이 청동기시대 전기 I 기부터 등장하지만 II기와 III기에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이 본격적으로 접촉이나 융화해 나가면서 III기에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 남해안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3기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11~10세기로 보았다.

정다운(2015: 78)은 전기 주거와 분묘의 토기유형과 토기문양으로 살펴본 단계설정, 그리고 유적의 절대연대를 조합하여, 호남지역의 전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섬진강유역의 남원 고죽동 1호를 III단계(기원전 10세기 전후)에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주거유형은 방형의 소형주거지와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출토 토기의 문양요소는 이중구연 I + 단사선a + 공열문b, 공열문a가 해당한다.

천선행(2016: 89)은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만경강유역권으로 유입되고, 2단계부터 남강유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이 서남해안권으로 유입되며, 두 지역을 주축으로 2·3단계부터 영산강유역, 섬진강유역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보았다. 서남해안권의 무문토기문화가 섬진강유역으로 유입된 대표적인 유적은 남원 고죽동 유적으로 문양구성, 주거의 평면형태와 구조 등이 유사성이 높다고 하였다.

섬진강유역 조·전기 편년에서 순창 원촌 유적에 대해서는 토기, 주거지 구조 등 조기로 편년함에 이견은 없으나 조기의 유일한 유적으로 비교 대상과 절대연대의 부재로 연구자간의 시각차가 있다.

전기 주거에 대해서는 섬진강유역권이 역삼동·혼암리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편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중기 편년

섬진강유역의 중기 편년은 이종철(2015), 김규정(2013, 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종철은 기원전 9세기 대의 잠정적 취락형성기, 기원전 8~6세기의 본격적 파급·정착기(발전기), 기원전 5~3세기의 정착·쇠퇴기로 상정하였다.

김규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절대연대 자료를 통해 볼 때 대체로 2700BP~2300BP로 편년하였다(김규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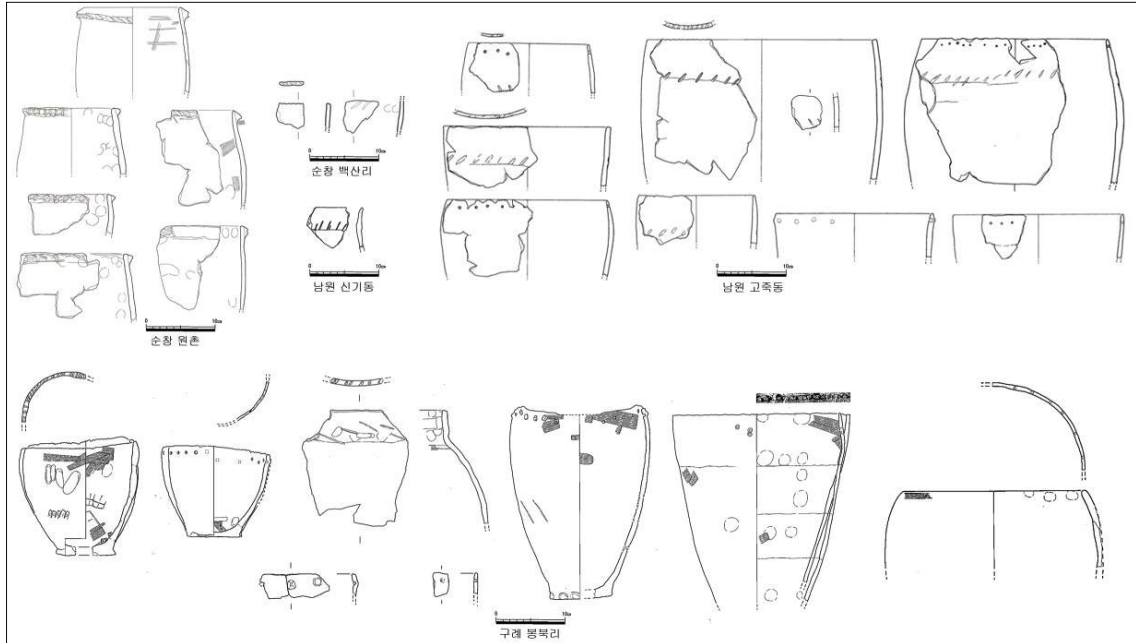
두 연구자 모두 절대연대를 근거로 편년하고 있으며, 최근 김규정의 편년 근거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표 3.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유적 절대연대 자료(김규정 2019 인용)

유적	유구	유형	역연교정용 (BP)	보정연대(BC)		비고
				16 역연대범위(68.2%)	26 역연대범위(95.4%)	
임실 망월촌	1주	II A	2200±50	360~270(40.5%)	390~150(93.3%)	
	2주	II A	2490±60	770~520	790~410	
임실 도인리	2주	II B	2510±60	700~540(50.1%)	800~480(88.6%)	
	6주	II B	2600±50	830~750(60.5%)	850~730(66.5%)	
	7주	II B	2580±50	820~750(46.2%)	840~530(95.4%)	
임실 외량2	3주	장방형	2570±50	810~740(39.8%)	830~530(95.4%)	
	10주	방형계	2500±40	650~540(42.2%)	800~480(95.4%)	
	11주	장방형	2410±30	520~400(68.2%)	550~400(81.3%)	
	13주	장방형	2470±40	760~510(68.2%)	770~430(95.4%)	
	14주	장방형	2550±30	850~750(51.5%)	810~740(54.9%)	
	16주	장방형	2490±40	700~540(54.6%)	790~430(95.4%)	
	20주	방형계	2520±30	650~550(37.7%)	800~540(95.4%)	
	3지	지석묘	2430±30	550~410(61.5%)	590~400(69.2%)	
	2지	지석묘	2470±30	670~610(20.8%)	770~430(95.4%)	
	1지	지석묘	2450±30	560~430(35.0%)	670~410(68.7%)	
임실 대명리	1주	II C	2390±30	490~400(66.1%)	550~390(81.3%)	
			2430±30	540~410(60.4%)	600~400(71.0%)	
			2500±30	650~540(47.8%)	790~510(95.4%)	
			2430±30	540~410(60.4%)	600~400(71.0%)	
	3주	원형	2510±30	650~550(45.0%)	790~530(95.4%)	
			2410±30	520~400(68.2%)	550~390(81.0%)	
			2430±30	540~410(60.4%)	600~400(71.0%)	
	4주	원형	2440±30	550~410(50.0%)	600~400(64.5%)	
			2380±30	510~430(45.4%)	540~390(92.5%)	
			2460±30	600~500(28.6%)	670~410(68.8%)	
			2390±30	510~400(68.2%)	550~390(89.9%)	
	5주	II A	2500±30	650~540(47.8%)	790~510(95.4%)	
			2430±30	540~410(60.4%)	600~400(71.0%)	
			2470±30	600~520(27.4%)	770~480(87.0%)	
			2480±30	670~530(46.9%)	770~530(90.9%)	
			2540±30	800~750(34.7%)	800~730(39.4%)	
임실 갈마리 해평	6주	II A	2440±30	550~410(50.0%)	600~400(64.5%)	
임실 대곡리	1주	?	2490±30	650~540(45.9%)	790~510(95.4%)	
	3주	II C	2509±25	644~590(32.8%)	695~539(71.8%)	
	1소	소성	2480±25	599~541(50.1%)	768~508(71.8%)	
곡성 오지리	4	I A	2489±25	651~545(49.4%)	774~511	
	6	I A	2670±60	895~795	980~760	
	12	I A	2650±50	850~780(60.0%)	920~760	
	14	I B	2640±60	700~540(52.0%)	800~480(91.2%)	
곡성 대평리	3주	I A	2710±50	900~815	980~790	
	11주	장방형	2370±40	510~390(68.2%)	550~380(87.4%)	
			2410±40	540~400(67.01%)	600~390(75.02%)	
	16주	I A	2250±40	300~230(42.6%)	400~200(95.4%)	
			2350±40	420~380(39.4%)	550~360(92.1%)	
			2500±40	700~540(54.6%)	790~490(92.2%)	
	17주	장방형	2270±40	290~230(34.7%)	330~200(55.8%)	
			2290±40	400~350(46.1%)	410~340(52.2%)	
	23주	I B	2180±40	400~350(46.1%)	410~340(52.2%)	
			2290±40	300~210(48.5%)	400~200(94.5%)	
	27주	노지	2240±40	300~210(48.5%)	400~200(94.5%)	
			2050±40	120~10AD(65.8%)	180~50AD(95.4%)	
			1960±40	AD~90AD(64.68%)	50BC~130AD(95.4%)	
순천 죽내리	1주	II A	3260±135	1688~1408	1881~1215	
			2790±130	1185~811	1365~764	

3) 주거지의 전개 양상과 특징

섬진강유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초기 주거유적인 순창 원촌 유적이 조사되어 이른 시기부터 청동기시대 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조·전기 주거지 조사예가 많지 않고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남지역 전체적인 전개 양상은 파악이 되나 섬진강유역에 한하여서는 해석에 무리가 있다.



도 2. 섬진강 중상류역 청동기시대 조·전기유적 출토 토기(김규정 2019 인용)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별 차이는 호남지역 중앙부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호남정맥이라는 자연·지리적 환경에 의해 서부지역은 가락동식토기 문화권, 동부지역은 역삼동·혼암리식토기 문화권이라는 두 개의 문화권으로 분류하였다. 섬진강유역은 동부지역 역삼동·혼암리식토기 문화권에 속하며 영남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김규정 2013). 그러나 전기문화의 발생 또는 유입, 파급 등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천선행(2016)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호남지역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복합적 양상을 띠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편년을 검토하고 전기무문토기문화를 4단계로 구분하였다. 섬진강유역의 전기문화는 남강유역에서 파급된 역삼동·혼암리토기 문화가 서남해안권에서 3단계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는 송국리형문화로 대표되며, 조·전기에 비해 유적이 급증하고 취락의 규모도 조·전기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중기취락은 섬진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기 이상의 주거지로 구성된 중규모 취락이 확인되고 있어 정주성 취락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15: 35).

중기의 주거지는 13개 유적에서 115기가 조사되었으며, 형식분류가 가능한 주거지는 106기이다.

이중 송국리식 주거지는 64기, 순수 방형계 주거지는 40기가 조사되었다.

表 45)를 보면 상류역에서는 원형계가, 하류역에서는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송국리식 주거지 각 형식은 IB > IA > IC · II A > IIB > ID > IIC 순으로 확인되며, ID 식 · IID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IB식의 주 분포권은 영남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호남과 호서지역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형식으로 섬진강유역에서 IB식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은 섬진강유역 송국리유형이 영남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규정 2019: 20).

표 4. 섬진강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식주거지 각 형식

지역	유적	수량	I (방형)				II (원형)				비고
			A	B	C	D	A	B	C	D	
상류역	임실 도인리	7					3	4			
	임실 외량2										
	임실 대곡리	3					1	1	1		
	임실 망월촌	4	2		1	1					
	임실 덕치리	1				1					
	임실 갈마리 해평	6			1		4	1			
	임실 대평리	1						1			
중류역	※순창 원촌	1	1								
	※순창 백산리	1	1		1						
	곡성 오지리	20	1	18	1						
	곡성 대평리	18	4	10	4						
	순천 죽내리	1									
	구례 용두리	1		1							
계		64	9	29	8	2	8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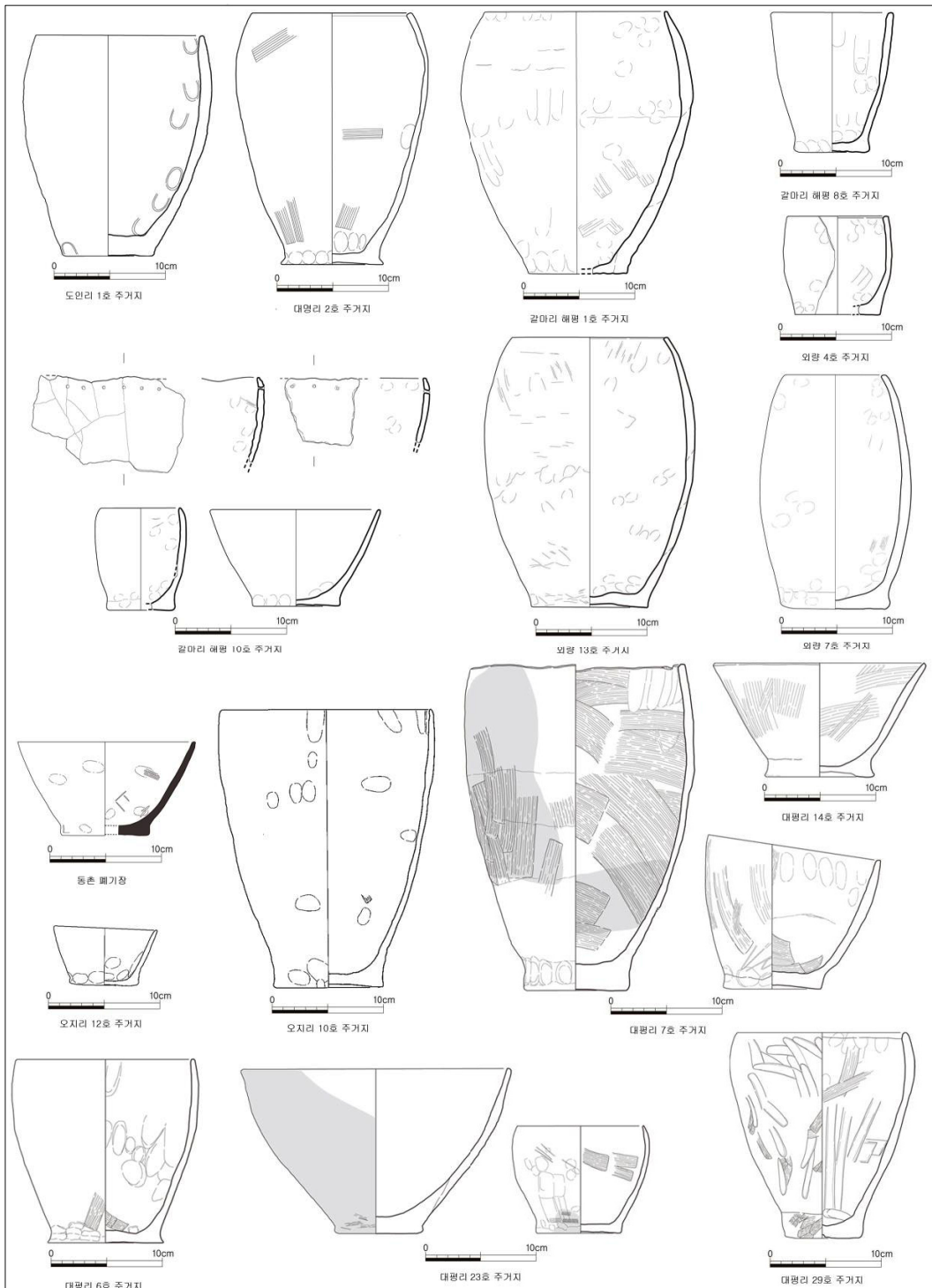
섬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유물은 재지계(圖 3)와 송국리계(圖 4)로 분류할 수 있다. 재지계는 전기의 특징적인 역삼동 · 혼암리식토기와 직립구연 심발형토기가 주를 이룬다(김규정 2019). 전기의 특징적인 공열토기는 섬진강 상류의 갈마리 해평 10호 주거지, 섬진강 중류인 곡성 오지리와 대평리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섬진강유역 중기는 외반구연 송국리식토기의 출토 빈도가 낮고, 재지의 직립구연 심발형토기 출토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기의 특징적인 문양요소가 중기까지 지속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재지전통이 중기 이후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중기로 편년되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립구연 심발형토기와 천발은 임실 외량2 유적, 임실 갈마리 해평 유적, 순창 백산리 유적, 곡성 대평리 유적에서 순수 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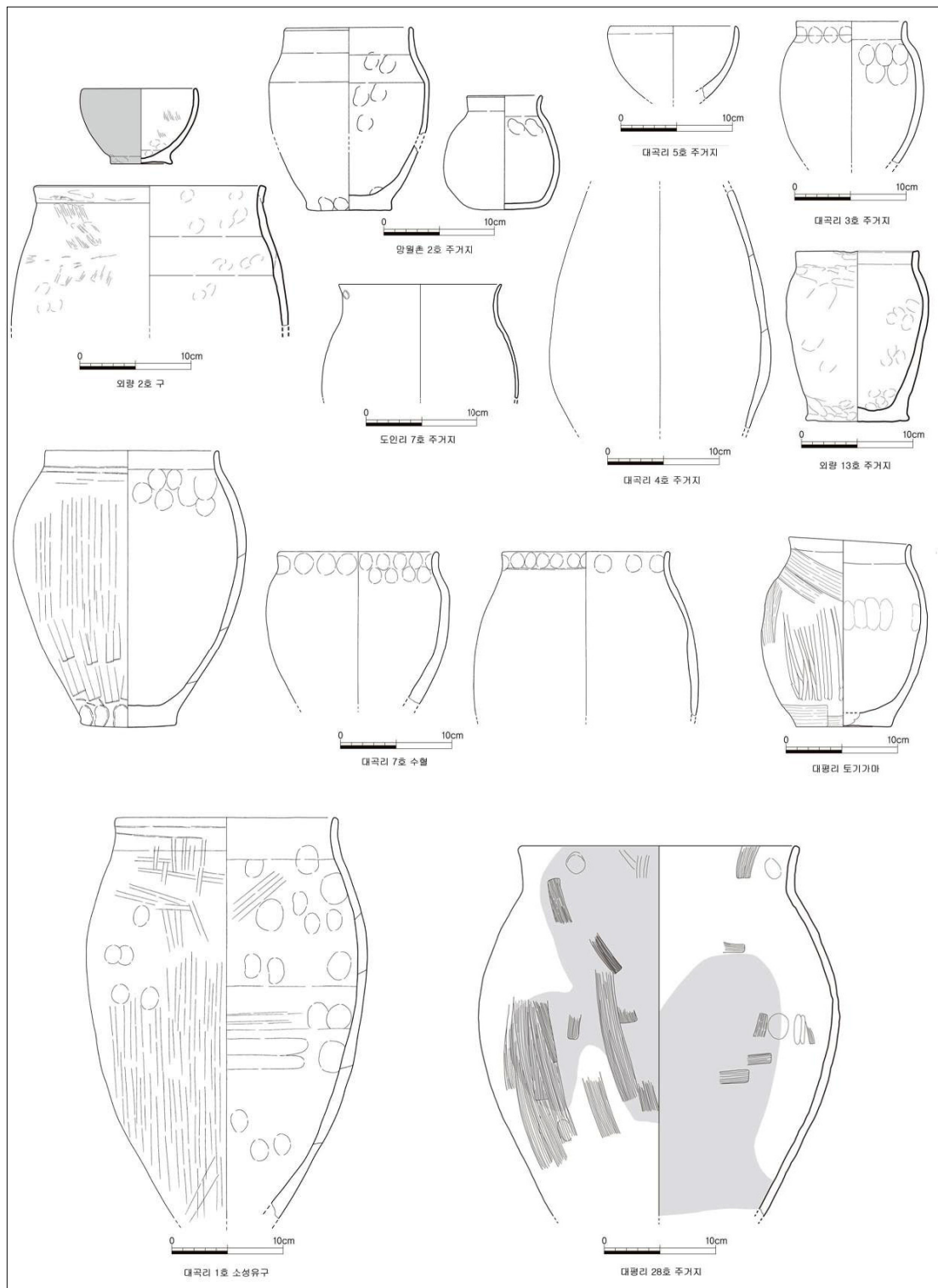
재지계 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순수 방형주거지를 섬진강유역의 전기 토착집단의 계보를 잇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임실 외량2 유적, 갈마리 해평 유적, 망월촌 유적에서는 미완성석기, 석재편과 다수의 박편이 확인되고 있어 석기제작 관련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갈마리 해평 유적의 경우 순수 방형주거지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공방으로 보고 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순수 방형주거지와 송국리식주거지의 관계를 시간성, 정체성의 가능성도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이외에 이종철(2015: 50)은 ‘서로 구분되는 동일 문화집단’으로 표현하였다.

5) 송국리식 주거지 형식은 김규정(2013: 90)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 3. 섬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 재지계 토기(김규정 201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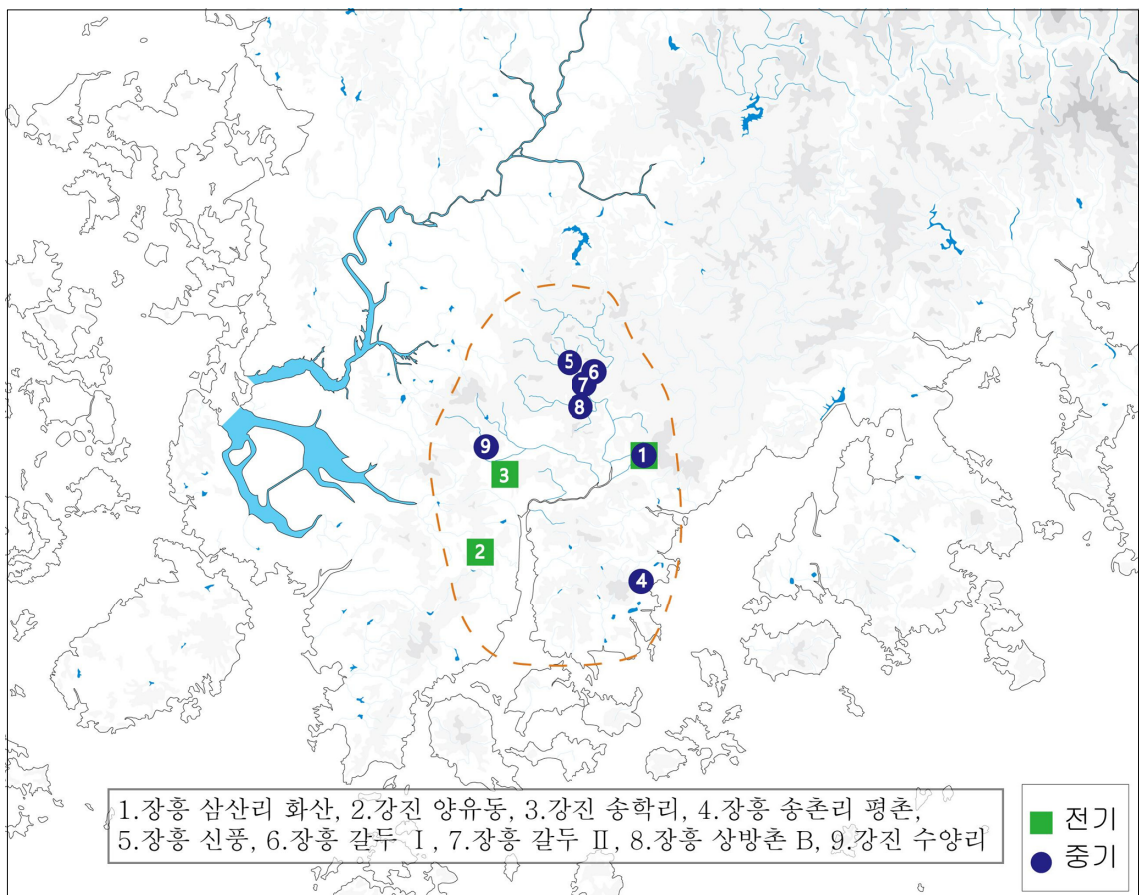


도 4. 삼진강유역 중기유적 출토 외반구연 송국리식토기(김규정 2019 인용)

Ⅲ. 탐진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양상

전라남도의 3대 강의 하나인 탐진강 유역에는 용반평야·부산평야·장흥평야·강진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장흥군 유치면·부산면·장흥읍을 지나면서 유치천·제비내·부산천 등과 합류하여 강진군의 군동면·강진읍을 지나 도암만(道巖灣)으로 흘러 들어간다. 심한 곡류를 하며 급경사를 이루는 지역이 많다. 홍수 때 많은 토사를 하류로 운반함으로써 하상이 상승하여 다시 홍수를 유발한다. 하구에는 조수의 영향으로 하폭이 좁고 구릉지가 인접하고 있어 직류하도를 이루나, 현재는 간척공사로 하도가 많이 정비되었다.⁶⁾

탐진강유역은 수계상 영산강유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탐진강유역 또는 남해안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금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탐진강유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 5. 탐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분포도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 유적 현황 및 분포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시대 주거지는 9개 유적 113기가 조사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탐진댐 수몰지구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주거와 지석묘로 구성된 대단위 취락만이 확인되었으며, 2010년 전후로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표 5. 탐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현황

시기	유적명	내용	공반유구	성격	입지
전기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3	신석기시대 적석유구, 지석묘	역삼동 혼암리
		2구역	1	함정유구 2	역삼동 혼암리
	강진 양유동		1		역삼동 혼암리
	강진 송학리		1		역삼동 혼암리
중기	장흥 삼산리 화산(1구역)※		2	지석묘, 수혈	송국리유형
	장흥 송촌리 평촌		1		송국리유형
	장흥 신평		51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장흥 갈두	I	35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II	10	지석묘군	송국리유형
	장흥 상방촌 B		2	지석묘, 수혈	송국리유형
	강진 수양리		1	지석묘	송국리유형

1) 전기유적

탐진강유역에서 조사된 전기 주거지는 3개 유적에서 6기가 조사되었다.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조사 되었다. 1구역에서 주거지 10기, 지석묘 5기, 석실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에 위치하여 하단부가 유실되어있으며, 전체 벽면이 잔존하지 않는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2기(1호, 2호), 원형계 2기(3호, 4호), 나머지는 방형계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1호, 2호에서 노지, 벽구, 주공이 확인되었으며, 10호에서 노지와 벽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1호에서 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토기와 방추자, 석착,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2호에서는 구순각목, 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토기와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3호, 4호 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있는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무문토기편과 석촉,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화산 유적 2구역에서는 주거지 1기와 함정유구,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내부시설로 벽구와 초석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완형과 지석이 출토되었다.

강진 양유동 유적에서는 (세)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벽구, 저장공, 주공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 구순각목+단사선문 토기와 석착,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다.

강진 송학리 유적에서는 장방형의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공이 확인되

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2) 중·후기 유적

탐진강 수몰지구에서 조사된 유적을 제외하고는 강진 수양리 유적과 장흥 송촌리 평촌 유적에서 송국리식 주거지 각 1기가 조사되었다.

장흥 송촌리 평촌 유적에서는 송국리식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원형의 내주공식이며, 연석이 출토되었다.

장흥 신평 유적에서는 주거지 51기, 수혈, 적석유구, 지석묘, 석실이 조사되었으며, 지석묘군은 유적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39기, 방형 1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중앙의 타원형구덩이과 벽구, 저장수혈, 출입시설, 단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석착, 연석, 지석, 용도불명석기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40호 주거지에서 관옥 191점이 출토되었고, 14호 주거지에서는 25점의 어망추가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장흥 갈두 유적에서는 I-가, I-나지구, II지구로 나뉘어 2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유적 주변에 4개의 지석묘군이 위치한다. 주거지 45기와 수혈 10기, 지석묘 94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8기, 방형 3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소군집으로 분포하며, 군집 가운데 공지가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시설과 출토유물은 신평유적과 유사하다.

장흥 상방촌 B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1호는 방형의 송국리식 주거지이며, 2호는 육각형의 지상식 주거지이다.

강진 수양리유적에서는 주거지와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형태는 방형이며, 유물은 발형토기와 호형토기 그리고 석촉, 지석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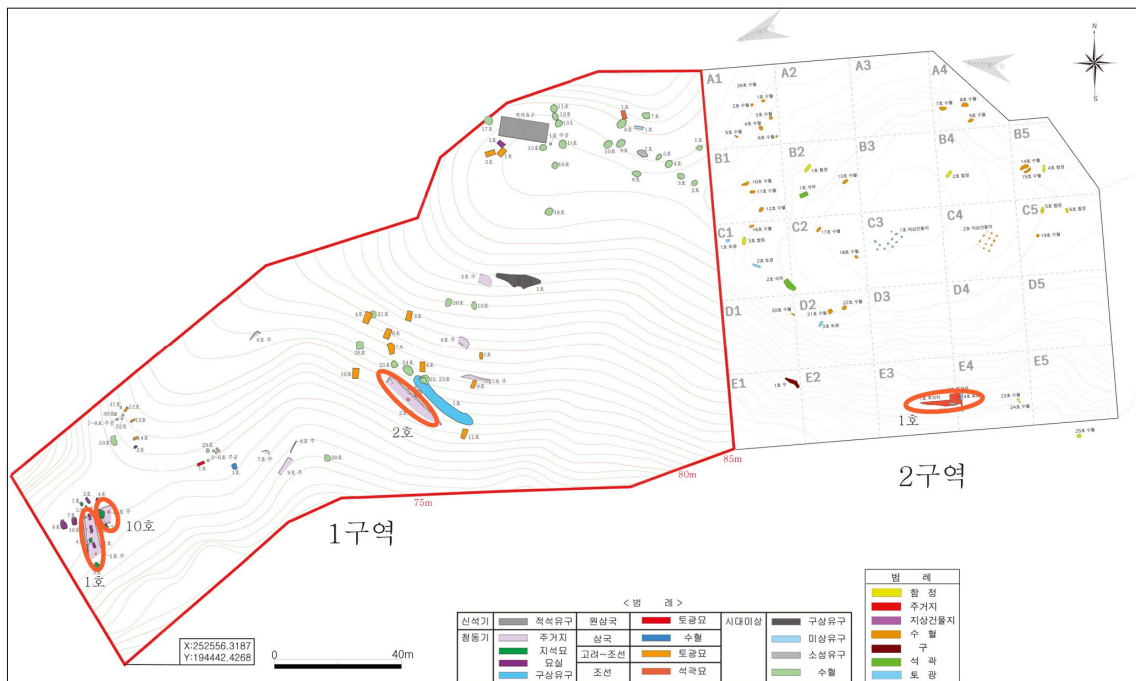
2) 시기별 양상과 특징

(1) 전기 주거 양상

탐진강유역에서 확인된 전기 주거지는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강진 양유동 유적, 강진 송학리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장흥 삼산리 유적에서는 전기 주거지가 4기가 확인되고 동시기로 추정되는 함정유구⁷⁾가 조사되어 주거지의 배치와 입지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삼산리 화산 유적은 동쪽의 사자두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말단 구릉에 위치하며, 주거지는 구릉의 남쪽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 간격은 1구역 1호와 2호는 약 100m, 1구역 1호와 2구역 1호는 약 150m이다. 함정유구들은 구릉의 정상을 따라 선상으로 분포하고 주거지는 구릉 하단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7)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2구역 조사는 주거지와 함정유구가 입지를 달리하여 중첩되는 양상이 없고 절대연대 측정치(1961~1781 cal BC)를 근거로 동시기 유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절대연대 측정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도 6.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유구배치도)

전기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에 따라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하며, 규모는 대, 중, 소형으로 구분한다. 탐진강 유역의 전기주거지 잔존상태로는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규모는 소형(삼산리 화산 1구역 10호, 강진 양유동)과 대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공, 노지, 벽구, 초석,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된다. 노지는 무시설식과 토광식이 확인된다. 화산 1구역 1호 주거지에서는 토광식 2기, 무시설식 1기가 주거지 중앙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산 1구역 2호 주거지에서는 토광식노지 1기가 북동쪽 벽으로 치우쳐져서 확인되었다. 화산 1구역 10호 주거지는 중앙에 북쪽으로 치우쳐 무시설식 노지가 있다. 강진 송학리 1호는 주거지 장축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노지 2기와 양 단벽 쪽에서 각각 1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토광식이다. 노지의 형태는 원형 또는 부정형으로, 토광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주거지 중앙 또는 안쪽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벽구는 강진 송학리를 제외하고 모든 주거지의 잔존하는 벽면에서 확인된다.

주공은 주거지 내부주공과 벽주공으로 구분되며, 주공간의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은 강진 양유동 1호에서 확인되었다.

초석은 삼산리 화산 2구역 1호 주거지에서 벽구에서 30~40cm 이격되어 확인되었다, 초석은 편평한 판상형 석재를 바닥면에 그대로 놓고 사용하였다. 초석을 사용한 전기 주거지는 담양 태목리(호문연, 2010), 장성 장산리(호문연, 2015)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탐진강유역의 주거유적은 단독 또는 3기이상의 군집을 이루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1기 이상의 노지가 설치되며 정형성 없이 주공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역삼동·혼암리유령 취락의 특징(김규정 2013)과 유사하다.

표 6. 섬진강유역 전기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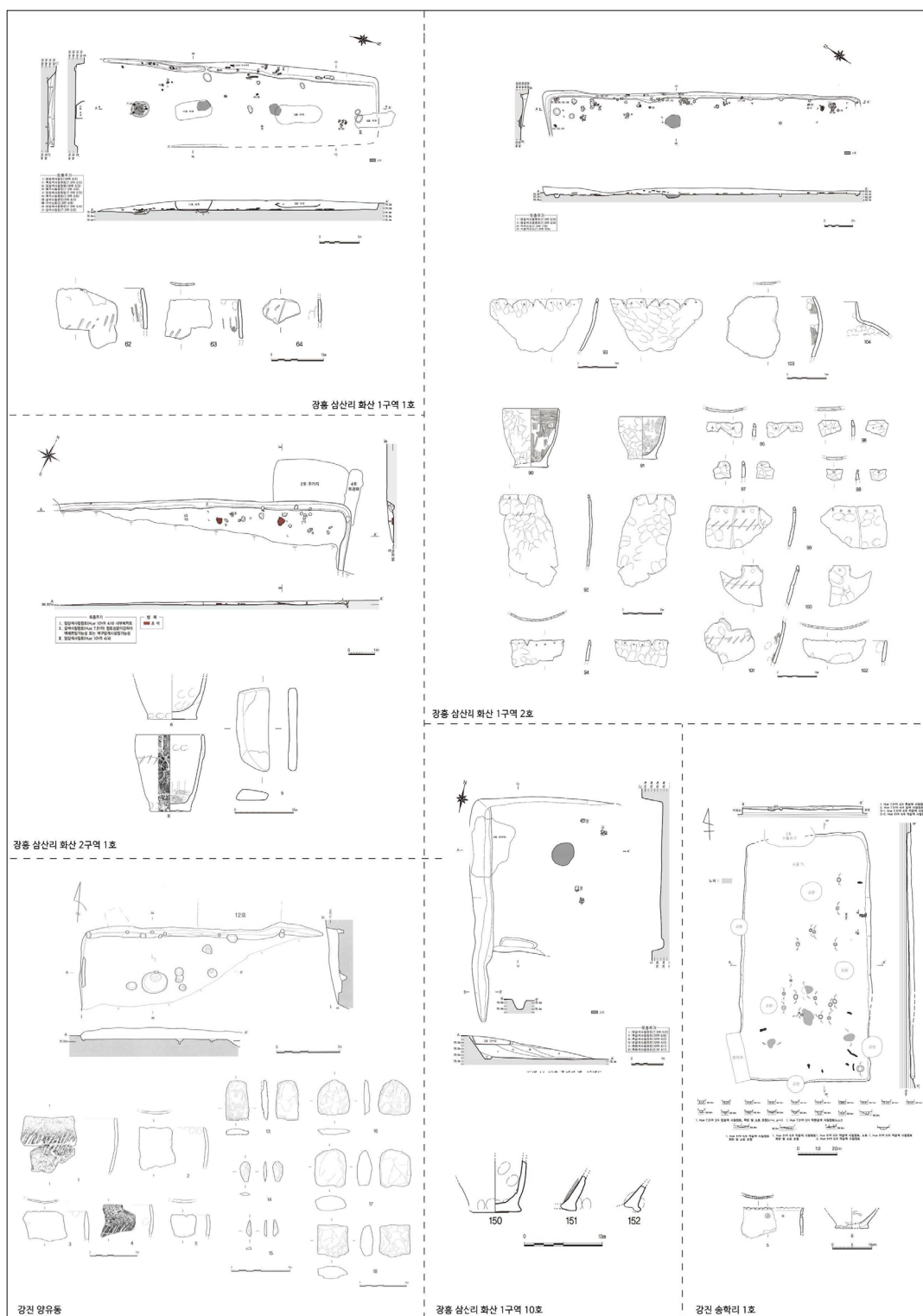
유적명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cm)			면적 (㎡)	내부시설				
				장축	단축	깊이		주공	노지	벽구	초석	수혈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1	(세)장방형	(1410)	422	50	(59.50)	○	3	○		○
		2	(세)장방형	2258	(312)	40	(70.44)	○	1	○		
		10	(장)방형	(355)	(250)	23	(8.87)	○	1	○		
	2구역	1	(세)장방형	(1120)	(272)	27	(30.46)			○	2	
강진 양유동		1	(세)장방형	(740)	(266)	14	(19.68)	○		○		○
강진 송학리		1	장방형	1268	662	38	83.94	○	4			

전기 토기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구분되며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역삼동·혼암리유형 공렬문토기로 대표된다.

탐진강유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문양은 표 7과 같다. 삼산리 화산 1구역 2호, 2구역 1호, 강진 양유동 주거지 출토 토기들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 토기로 홍밖음(2010)의 분류에 따르면 ⅢC에 해당하며 남원 고죽동 1호, 보성 옥평 1호, 광주 산정동 1호, 함평 신흥동 5호, 순천 마륜 1-3호 주거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표 7. 섬진강유역 전기주거지 출토 토기 문양

유적명	유구 번호	단사선	이중구연 단사선	공렬문	구순각목 공렬	이중구연 단사선 공렬문	각목문
장흥 삼산리 화산(1구역)	1	3					1
	2		1	2	4	3	2
	10						
장흥 삼산리 화산(2구역)	1		1				
강진 양유동	1		2				3
강진 송학리(2구역)	1				1		



도 7. 탐진강유역의 전기 주거지 및 유물

절대연대는 삼산리 화산 1구역 1, 2호에서 9개가 측정되었다. 연대는 1호가 2,750±50, 2,690±40, 2,750±40이며, 2호는 2,940±50, 2,890±40, 2,960±40, 2,730±40, 2,920±40이다. 1호는 2,700BP, 2호는 2,900BP로 비교적으로 안정된 연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8. 장흥 삼산리 화산 유적 방사성탄소연대 및 고고지자기

유적	유구	역연교정용 (BP)	보정연대(BC)	고고지자기 복각(도)	비고
장흥 삼산리 화산	1구역 1호	2,750±50	1,004~810	53.8	50도 청동기시대 전기~ 60도 청동기시대 중기
		2,690±40	912~798		
		2,750±40	980~8116		
	1구역 2호	2,940±50	1,313~1,002	51.6	
		2,890±40	1,212~972		
		2,960±40	1,313~1,041		
		2,730±40	941~807		
		2,920±40	1,261~1~01		

탐진강유역의 전기주거지는 유물이 빈약하고 절대연대와 비교할 만한 자료도 많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유물과 절대연대를 근거로 하면 흥밖읍(2013)이 편년한 3기에 해당한다. 3기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출토된 가락동유형이, 영산강유역권, 섬진강유역권, 남해안지역권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열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며, 단사선이 이중구연부 상면~동체부에 걸쳐 시문되는 비율이 높고, 이중구연의 길이는 4cm 이상만 출토된다. 절대연대를 참고한 이 시기의 절대연대는 대체로 B.C 11~10세기로 추정해볼 수 있다.

탐진강유역의 전기 주거유적은 주거지의 형태와 유물로 보아 역삼동·혼암리문화에 해당하며, 남해안의 역삼동 혼암리문화와 영산강유역의 가락동유형이 접변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중·후기 전개양상

탐진강유역 청동기 중·후기는 송국리형문화로 대표된다. 김규정(2003, 2013), 이종철(2008, 2010, 2015), 박수현(2004), 신상호(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주거지가 확인된 장흥 신평, 갈두 유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새로 조사된 유적이 수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략적인 취락의 특징과 편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종철(2008, 2010, 2015)은 장흥 신평·갈두 유적의 주거지 면적을 분석하고 각 군으로 나누었다. 갈두 유적의 각 군집 중 초대형 주거지(가-13)를 집회 장소로 보고 인접한 중형(14) 주거지와 소형 주거군은 우두머리 혹은 대인(大人)과 같은 성격의 구성원과 연관된 주거군으로 보았다. 신평 유적은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3개군으로 구분되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주거의 배분을 공간적 활용과 주거의 배치에 따라 적용한 듯하지만, 세부적인 배치는 정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취락은 1군과 2군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지만, 중핵적 위치는 1군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1군의 지속적인 확장과 3군의 성장으로 주거군을 일렬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채워감으로서 취락이 확장되고 주거군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신평·갈두 유적은 인접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거양상을 보이고, 순수하게 송국리형 주거지로만 이뤄진 취락이다. 그리고 주거군의 군집화현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거점취락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철 2015).

김규정(2013)은 장흥 신평·갈두유적을 주거지와 분묘가 공존하는 취락유형으로 보았다. 주거군과 분묘군이 일정한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고 있고 서로 공간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시에 주거군과 공간을 달리하여 분묘군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갈두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지식묘가 소단위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지식묘도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와 송국리식 주거지가 모두 조사되었는데 신평과 갈두 유적이 조사된 탐진강 상류지역은 중기의 단일 취락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후기 주거유적의 편년은 신평유적의 절대연대를 근거로 할 때 유적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았으며(호문연 2006), 갈두 유적은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하여 성장한 집단으로 보았다(이종철 2010). 갈두 취락의 경우 주거지의 중복관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유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주거지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로 볼 때 기원전 4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김규정 2016).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는 매우 획일적인 또는 보수적인 주거형태를 보인다.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가 대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주공 일색의 주거형식이라는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주거경향과 유사하다.(이종철 2010)

IV. 맺음말

섬진강, 탐진강 유역은 호남지역의 영산강, 만경강 유역만큼 많은 조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순창 원촌, 남원 고죽동, 장흥 신평, 갈두와 같이 한 시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적들로 인해 주목 받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섬진강, 탐진강은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역삼동·혼암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인접지역인 영남지역, 영산강유역, 금강유역에서의 유입이 짐작된다. 중기 역시 영남과 금강유역에서의 문화유입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동성 가운데 주거유형의 보수성과 토기문화의 재지정도 확인된다.

본 발표의 목적은 섬진강과 탐진강 유역의 청동기 주거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으나, 발표자의 역량 부족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확인에 그쳤다. 이외 주거와 함께 분묘, 생업 등은 추후 과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 김규정 2003, 「장흥 송정리 갈두유적 조사개보」, 『제46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김규정 2016, 「제4장 호남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
- 김규정 2019,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일고찰」, 『호남고고학보』 62.
- 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 2004, 『장흥 신평리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철 2008, 「탐진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이종철 2010, 「전남 남해안의 송국리형 주거문화」, 『한국청동기학보』 6호, 한국청동기학회.
-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聚落體制와 發展』,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 2015, 「섬진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전개」,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제2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 양영주 2013,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 정다운 2015,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시공간적 전개양상』,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선행 2016,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 『호서고고학』 35. 호서고고학회.
- 홍밝음 2010a,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밝음 2010b,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36.
- 홍밝음 2013,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